

루이 드 스와송의 에워싼 주택배치 유형 해석

An Analysis of the Enclosed Housing Cluster Type of Louis de Soissons

손 세 옥*
Sohn, Sei wook

Abstract

Welwyn Garden City benefits from the greater design cohes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which gave it a more distinctive 'brand image' almost from the outset than its older garden city(Letchworth, Hampstead). Its planner, Louis de Soissons, brought a more obvious sense of traditional formal urbanism to the design of the second garden city. This was rather different to the distinctive but rather more informal arts and crafts approach of Raymond Unwin. Here it attempts to analyze how they greatly and firmly established the concept of Housing Group in the residential design, and what similar elements between Unwin and de Soissons in the New Town planning. It is pointed out that the Housing Group theory is composed of recognizing urban life as totality, and group planning theory, and that they definitely originated a new technique in the residential area. It is analyzed that the syntactic relations between the group planning theory and enclosed housing cluster designs in the English garden city are epitomized in Welwyn Garden City.

Keywords : Louis de Soissons, Raymond Unwin, Welwyn Garden City, Enclosed Housing Cluster, New Town planning

주요어 : 루이 드 스와송, 레이몬드 언윈, 웰린 전원도시, 에워싼 주택, 신도시계획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40년부터 1901년 사이 런던의 인구는 배로 증가하고, 대런던으로는 거의 3배로 부풀어 오른다. 이 성장은 19세기 자본주의의 왕성한 활동, 항만 교통의 증가, 지방 인구의 대도시로 흡인 등이 원인이었다. 1870년 이후가 되면 인구의 자연증가 경향이 현저해지면서 경제·산업 활동 발전에 동반하여 도심 인구가 외연부여로 이동을 개시한다. 이에 따라 교외는 이 거대한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강제적 거주 장소로 변한다. 1901년 대런던의 인구는 658만 명, 그중에 204만 명이 교외 거주이다.

특히 1863년에 시작되는 철도의 발달은 교외의 확장을 촉진하고, 더하여 지하철의 출현이 단순한 도시사이 교통을 능가하여 고올다즈그린과 햄스테드 등 교외지역의 비약적인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런던 교외 5~15 Km권역에서는 1820년부터 1914년에 걸쳐 도시화가 진행하였다. 그 곳에서는 건설업자겸 부동산업자가 만든 같은 주택타입을 반복한 일자형 주택 단지(estate)가 이 성장을 막는 역할을 하고, 광역적인 도시화를 촉진하였다. 양심적이지 못한 투기업자들에 의한 계속된 개발로 런던 교외는 마구 비참한 개발이 횡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전원도시론이 런던의 도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확고한 기반을 형성하면서 하워드(Ebenezer Howard)에게 1898년 '미래-진정한 개혁으로 이르는 평화로운 길'을 간행하게 하였다. 이 저서는 전원도시라는 특수한 성장을 제안하는 개인적인 이론서이고, 본질적으로 경제서로서 측면이 강하다. 그 속에서 그는 시당국의 관리와 도시 건설에서 재정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도시 성장의 수혈로서 경제적이며 건강한 해결책으로 전원도시를 제안하고 있다.

하워드는 자신의 이론의 우수함을 확신하면서 전원도시 실현을 착실히 진행시킨다. 그는 젊은 건축가 언윈(Raymond Unwin)과 파커(Barry Parker)를 기용하고, 1904년 레치워스(Letchworth, 1904) 사업에 착수한다. 이 도시는 동시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건설을 진행하면서, 재정적으로도 도시적으로도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리고 젊은 건축가 언윈은 이 경험을 도시계획 이론으로 체계화하고, 그것이 머지않아 햄스테드 전원교외(Hampstead Garden Suburb, Middlesex, 1906-)의 실험으로 이어지면서, 영국 도시계획의 수법으로 제2차 대전까지 오랫동안 중요하게 이용되었다. 가구 밀도와 주택의 건설에 대해서 정하는 도시계획법 공포(1906년), 그리고 1909년 개정을 통해 각 해당 자치체에 도시계획에 있어 한 층의 권한을 주게 된다. 이를 기회로 언윈은 '실

*정회원 대전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초연구(R05-2002-000-01095-0)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 E. Howard(1898), To-morrow: A Peaceful Path to Real Reform, Swan Sonnenschein, London.

천으로서 도시계획²⁾을 출판한다.

1919년 이후 하워드네 제2의 전원 도시 건설에 몰두한다. 웰린 전원도시(Welwyn Garden City, 1919-)가 그것이다. 웰린은 런던을 중심으로 하는 띠 모양 도시군의 일부로서 런던의 성장을 지지한다. 다만 철도에 의해 수도와 연결은 하면서도 도시로서 생산 면에서 자립성을 구비해야 했다. 하워드는 당시 새로운 세대에게 평판 높은 건축가 루이 드 스와송(Louis de Soissons)³⁾을 주임 건축가로 임명한다. 그곳에서 스와송의 관심은 하워드의 전원 도시 이념(자율적 관리, 전원과의 관계)과 언윈의 이상을 형태로서 구현화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상의 일부가 실현되어 졌고, 이후 런던 주위에 건설된 25개 이르는 위성도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려 하였다. 또한 이 경험들이 전후 뉴타운과 그린벨트 정책을 추진하여 나가는 데 있어 큰 힘이 되었다.

이제까지 가장 먼저 근대적 도시계획을 확립한 영국에 있어 일련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으로 하는 웰린 도시계획과 주택지 계획은 하워드와 언윈의 이상을 잘 구현한 스와송에 의해 계획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로서 주택지내에 켈데삭 주위를 에워싸는 주택 배치를 다양하게 추구하였다. 연구목적은 웰린 전원도시를 중심으로 스와송의 도시계획과 주택지 계획 내용을 정리하면서, 특히 그의 에워싼 주택지 배치법의 특성을 밝혀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배경으로는 최근 우리의 대도시 주변지역에 전원적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를 바탕으로 교외형 주택지 개발이 확산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⁴⁾을 갖고 있기도 하다. 전원주택단지의 개발 사례들은 주거환경이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있을 뿐 일반 도시 단독주택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주택지계획을 보이고 있다. 전원적인 주거환경의 향유라는 기본적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게 대부분이다. 과거 일부 계층의 별장, 주말주택 등의 용도로 전원 속에 건축되던 교외형 주택과는 달리 일반 도시가구들을 위한 주거단지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로서 계획내용을 전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런 이유로 산업혁명과 대도시내 과밀화로 가장 일찍 교외화를 겪으면서 교외로 주택지계획에 가장 먼저 대응한 영국을 대상으로 교외 주택지계획을 현 시점에서 다루어 볼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2) R. Unwin, *Town Planning in Practice*, T. Fisher Unwin, 1909 (본연구는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4년 판에 의한다). 이 고전은 불어·독일어·러시아어로 번역되어 있다. 또 그의 주요 논문은 다음 책으로 정리되어 있다.

W. L. Creese, ed., *The Legacy of Raymond Unwin; A Human Pattern for Planning*, The MIT Press, 1967.

3) 스와송(Louis de Soissons, 1890~1962)은 건축가, 도시계획가이며, 초기 웰린 기본도시계획과 웰린내 여러 건축물을 계획 설계하였고, 1925년 이후 웰린에서 거주하였다.

4) 전원교외 주택지의 문제점과 개발실태는 다음 문헌에서 다루고 있다. 박인석, *교외주택단지의 계획특성 및 개선방향 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9. 2. 손세욱, *교외주택단지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001. 8 등이다.

따라서 영국의 전원도시 중에서 하워드의 전원 도시 이념과 언윈의 이상을 형태로서 잘 구현화 한 웰린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나타난 계획 특성들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교외주택지 계획에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영국 주택지계획에서 언윈이나 스와송의 공헌으로는 집단으로 계획한 공간 디자인의 독창성에 있다. 각 주택 디자인은 전통적 양식을 고수하면서, 각 주택들이 모여 집단이 되었을 때에 공간 구성으로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다. 즉 개별 공간은 계획 의지에 따라 제어된 집단 공간 속에 위치 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으며, 그곳에서 공간 질서도 생긴다는 인식이다. 언윈의 집단 계획 이론은 주택지 설계에 있어서 10~20채 주택을 공동광장으로 에워싼 집단으로 계획하고, 공동광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공간을 상호 작용하여 공동체 형성이 잘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러한 계획방법은 영국 주택지 설계방법으로 정착되었고, 언윈의 저서 출판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되었다. 햄스테드가 언윈에 의해 계획되었다면 웰린은 스와송에 의해 언윈의 계획이념들이 변형되어 반영된다. 웰린에서는 켈데삭이 보다 다양하게, 또 에워싸여진 중심공간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스와송에 의해 계획된 웰린의 도시계획과 주택지의 형태를 여러 관련 문헌들을 통하여 파악한다. 주택지의 형태들은 웰린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자세히 조사하면서 몇 몇 유형으로 분류하고, 계획상의 특징을 추출한다. 특히 스와송에 의해 다양하게 제안된 ‘에워쌈’의 유형을 언윈이 제안한 유형과 대비하면서 정리하고, 주택지 배치에 있어서 에워쌈의 특성에 대하여 고찰한다.

II. 웰린 전원 도시계획

웰린은 런던에서 북쪽으로 22 km 거리에 있고, 대런던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서 영국 수도의 성장을 조절하는 환상 뉴타운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제일차 대전후 하워드는 그의 친구 오즈본(Sir Frederick Osborn)과 함께 새로운 전원도시 창설을 위한 조직을 설립한다. 레치워스의 성공도 있고, 또 런던 근교에서 조기에 주택 건설의 필요성도 있어, 제2의 전원 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의 구입을 계획하게 된다. 하워드는 친구의 원조를 얻고, 웰린 전원도시 조합(1920년 4월)을 설립하고, 건축가 스와송(Soissons)을 주임 건축가로 임명한다. 스와송의 기본 계획과 함께 곧 건설에 착수하였고, 도로망 공사는 기존 도로를 살리는 형태로 구상되었고, 대로를 시작으로 일반 도로의 건설에 따라 공업 지대의 활성화가 계획되었다. 이렇게 해서 도시 노동자를 위한 최초 주택이 완성한 것은 1920년 크리스마스이었다⁵⁾.

5) Osborn F. & Whittick A.(1963), *The New Towns - The Answer to Megalopolis*. - Spon: London, pp.27-30.

1. 웰린 전원도시 계획내용

여기서 스와송이 작성한 웰린 도시계획안(1924년안, 그림 1)을 보면 4개 지역은 철도를 따라서 전체 시야를 형성한다. 최초의 지역은 업무 상업지구이고, 철길 넘어 공업, 그리고 외곽 양편으로 주거지구가 2개이다. 고밀도 업무 상업지구에서는 직교형의 패턴, 모뉴멘탈한 축선이 있고, 가로에서 크게 밀어 낸 철도 역사, 주거 지구, 독립 주택으로 구성되는 지구 등이 둘러싸임과 시각적 연속성을 중심으로 언원 특유의 수법에 따라 구성된다. 또한 그 당시 일반화 되지 않았던 지역제(Zoning) 분리에 대한 위계의 존중이 보인다.

스와송은 원래 자갈을 깐 시골도로에 지나지 않는 핸드사이드 레인(Handside Lane)이나 브리지 로드(Bridge Road) 등의 기존도로의 활용에서부터 시작했다. 그 곳에 최초 건설을 중복 하면서 구에센 워크(Guessens Walk)의 축을 사이에 두는 수목을 포함하여 수목의 재이용도 피했다. 또 그는 부지 전체를 조사하여 거주지구와 공장의 배치를 결정하고, 철도의 커브를 이용해서 축선을 활용한 훌륭한 구성으로 마무리 했다.

남서지구(그림 2)는 파크웨이의 강한 축선이 2개의 구획으로 나누며, 자연스런 곡선의 가로에 따라 분할된 가구와 장방향으로 분할된 가구가 만들어 내는 대립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중앙대로(Parkway)와 그린벨트(Greenbelt)가 일련의 관계에서 해방된 요소 사이를 결합해 완충 공간을 만들어 내고, 2개 가구사이에 상관적 혹은 대립하는 지역을 형성한다. 특히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남서지구는 철도에 의해 동쪽을 분단되고, 서쪽 부분은 기복이 심하다. 스와송 계획안은 가로의 입구, 로터리,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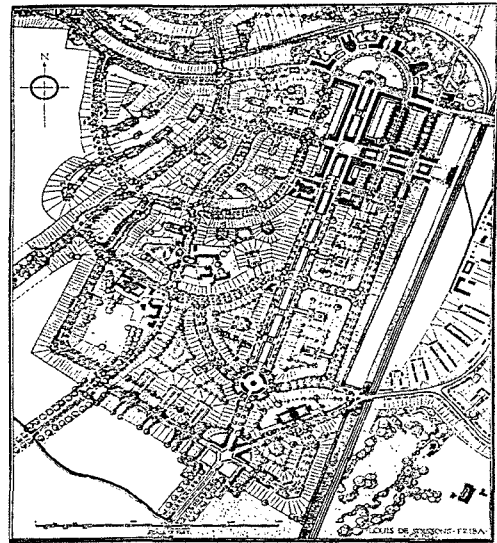


그림 2. 웰린 전원도시 남서쪽 근린주구 배치계획(1920~26년).

크웨이, 중심부로 계속하는 구성이 보이고, 그것이 동쪽으로 안내해 역에 이른다. 언원의 원리에 따라 분기로나 에워쌌을 회화적으로 배치하고, 기존가로나 식재, 농촌의 건물은 보존하면서 새로운 전원도시를 계획하였다. 웰린도 햄스테드처럼 경계로 둘러싸이고, 전원 속을 가로지르는 작은 가로는 문을 통해 도시로 접근하도록 하였다. 가로와 가로수가 사람이 사는 장소로 접근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광장을 지나가면 머지않아 건물의 밀집이 도시를 예고하는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다.

언원이 햄스테드에서 실험적으로 시험해 본 도시 디자인 수법을 스와송이 웰린에서 체계적으로 쓰고 있다. Panerai 등(1977)은 웰린의 도시계획에 대해 “회화적 효과와 에워쌌의 의도가 중복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중세’ 도시와 그 변화(variation), ‘고전적’ 도시와 그 엄밀성 및 보강 단위이라는 2개의 도시 이미지를 중복하면서, 중심지구와 거주지구 사이에 일정한 위계를 형성한다.”⁸⁾고 한다.

2. 웰린 전원도시에서 주택지계획

이러한 도시전체 모습과 더불어 주거지 모습(그림 3)을 보면 웰린 전원도시에서 스와송은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필요한 요소로 곡선 가로와 함께 주택의 그룹핑을 레치위스와 햄스테드처럼 추진했다. 주택을 소광장이나 켈테삭 주위에 에워싸면서 배치하여 시각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되면서, 또 도로와 주동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하면서 가로경관을 구성하도록 했다.



그림 1. 웰린 전원도시: 스와송에 의한 기본계획(1924)

6) Osborn F.(1970), Genesis of Welwyn Garden City: some jubilee memories, Town and Country Planning Association, London.

7) 언원의 Hampstead Garden Suburb(1905년)는 웰린보다 16년 앞서 계획되었으며, 그의 주택단지의 기법은 전세계에 영향을 끼쳤다. "후세계발에서 햄스테드(Hampstead)의 수준을 넘은 것은 적다"고 칭찬을 받고 있다. Editor, "Hampstead; the Unique Suburb", Town & Country Planning, Vol. 25. No.7. July 1957, p.276.

8) Ph. Panerai, J. Castex, Formes Urbaines, Bordes, Paris, 1977 (住環境の都市形態, 鹿島出版會, 佐藤方俊譯, 1993), p.73.



그림 3. 남서쪽 근린주구내 일부, 주택지 배치모습

웰린에서 ‘에워쌌’의 형태를 언윈이 제안한 햄스테드에서 ‘에워쌌’과 비교하면, 중앙 공간의 다양한 전개가 분명히 나타난다. 50~100호의 저렴 임대 테라스하우스, 분양주택, 보통 임대주택, 호텔을 겸한 사각모양의 플랫(flat)이 교대에 배치되어 하고 있다. 오래된 농가와 아름다운 수목은 신중히 보존되어 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다. 컬데삭의 다양함이나 각 블록들이 교묘히 결합한 특징적인 설계 방법이 특히 주목된다.

웰린에서 각 클러스터(Cluster)의 모습과 에워쌌의 형태들은 뒤(4절)에서 상세히 다룬다.

III. 언윈의 교외 주택지 계획

웰린에서 주택지 계획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언윈의 계획 기법을 개괄적으로 고찰 정리 할 필요가 있다⁹⁾.

1. 언윈의 에워싼 주택 배치계획

언윈의 주택지 계획기법은 여러 내용을 갖고 있으나, ha당 30호라는 전원도시에 알맞은 저층저밀도 구성을 취하고 있다. 주택들을 에워싸 배치하여 그룹핑하고, 중앙부에 공동공간을 설치하여 사회적 소집단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수목보존, 등고선 존중 등의 자연존중, 곡선도로, 마을의 경계를 분명히 하였고, 주택디자인은 코티지 풍의 디자인 등으로 시각적 공간구성이 되도록 했다.

특히 그가 구상하였던 에워싼 주택 배치기법은 마을내 중요한 생활공간인 공동광장(village green)을 공간 이미지로 참조했다. 오래된 마을에 보이는 공동 광장을 둘러싸는 주동배치(住棟配置)에 대하여, 그는 “부지전체가 공동 소유되어 있는 경우에 그린(green)의 주위에 주택을 집합하여 아이를 위한 놀이터, 볼링, 크리켓, 테니스용의

잔디밭, 노인을 위한 장식정원, 주민들을 위하여 공동 채소밭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 (중략) 이러한 공동에 따라 사람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은 하나의 질서 있는 커뮤니티의 표현이 우리들의 교외에 도입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¹⁰⁾” 라고 하면서 새로운 교외 주택지를 계획하려 하였다. 이 공동광장(village green)은 언윈의 계획에서 초기 공동광장을 둘러싸는 주동 배치를 시작으로 정형화해 나가면서 장방형 공동광장이 배치되고, 그 외곽을 따라 주동이 규칙적으로 세워지는 여러 도시형 쿼드앵글(quadrangle)¹¹⁾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언윈에 의해 최초로 에워싼 배치로 실현된 예가 레치워스의 Birds Hill Estate(1905년)였다. Birds Hill Estate(표 1-I)는 부지가 큰 활 모양을 그려 달리는 도로로 향해 완만하게 기울어져 있다. 그 경사지에 15채의 주동이 세워지고 있으며, 그 안에 5채는 컬데삭 도로를 둘러싸고, 5채는 녹지를 둘러싸도록 배치되어 있다. 지구의 안길이는 동쪽으로 공업지구를 마주하면서 꽤 깊지만, 그러나 세가로로 이분하기에는 얇다. 그래서 안길이가 있는 토지를 유효히 이용하기 위해서, 공동광장과 컬데삭을 동시에 설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구는 이른 시기에 공동광장, 컬데삭이 계획된 장소로서 근대주택지 계획 역사에 빛나며¹²⁾, 파커와 언윈의 손으로 1905년에 설계로서 에워싼 배치에 대한 초기 디자인 언어를 모두 다 계획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파커와 언윈이 설계한 픽스모어힐(Pixmore Hill, 1905-6년)에서는 직선도로의 종점에 장방형 그린에 배치되고, 외곽을 따라 주동이 규칙적으로 한 줄로 세워지고 있다.

2. 햄스테드 전원교외에서 에워싼 배치계획

초기 레치워스 계획에서 언윈은 주택지의 공간 질서를 주택의 그룹핑으로 강조하게 된다. 이후 햄스테드 전원 교외에서 언윈은 설계 언어로서 공동 광장, 주택의 그룹핑을 확립하고자 여러 모델을 제안하게 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표 1-II) 같다¹³⁾.

첫째 유형은 컬데삭 도로에 여러가지 주동이 배치되는

10) R. Unwin(1901), *The Art of Building a Home*, p.49.

11) 쿼드앵글(quadrangle)이란, 기하학으로 사각모양을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건축으로서는, 중정의 네 변을 둘러싼 □자형 평면, 두개 L을 ㄷ형 평면을 가진 건물이나 건물군을 가리킨다. 건물군으로서 쿼드앵글은 중세수도원에 유래하여, 영국에서는 수도원 해체이후도 병원, 구빈원, 대학건물 등에 중정형 평면이 답습된다.

12) 우리가 컬데삭을 이용한 주택지 모델로 Clarence Stein 과 Henry Wright에 의한 래드번(Radburn 1928-, Manhattan으로부터 24 km 떨어진 미국 동부 연안의 뉴저지주 녹지)이 먼저 연상되나, 래드번 계획은 Stein이 Letchworth와 Hampstead 전원 주택지의 디자인들을 연구하는 영국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Unwin의 컬데삭 과 Clarence Perry(1929)의 근린주구개념을 결합하여 계획되었다고 한다. 즉 언윈이 컬데삭을 이용한 Letchworth 가구계획은 래드번 계획보다 25년이나 앞선 것이며 강한 영향을 주었다.

13) 본 연구에서 선행하여 “레이몬드 언윈의 쿼드앵글의 유형해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5권 제6호, 2004년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며, 여기서 일부내용은 상기 논문에서 재인용하였음.

9) 본 연구에서 선행하여 언윈의 주택지 계획기법에 대해서는 “언윈의 주택지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1년 6월과 “레이몬드 언윈의 쿼드앵글의 유형해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5권 제6호, 2004년으로 게재 하였으며, 여기서 일부내용은 상기 논문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것으로, 햄스테드에는 컬데삭 도로를 이용한 ‘쿼드앵글’이 여러 곳에 있다. 대개 클로즈(close)란 명칭을 붙이고 있다. ‘클로즈’란 웨일즈의 Vicar Close와 같은 좁은 경내를 지칭하는 말이고, 언윈은 그러한 중세의 변화가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햄스테드의 컬데삭 도로에서도 이 이름을 사용하였다. 대개 폭이 좁고 길지만, 그림처럼 폭이 넓고 앞뜰을 면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두번째 유형은 그린주위에 환상도로(loop)가 둘러싸이고, 그 세 방면에 주동이 배치되는 것으로 빌리지 그린을 둘러싸는 주동배치가 조지조의 스퀘어(square)의 영향을 받아 정형화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세번째 유형은 컬데삭 도로 종점에 환상도로가 둘러싸이고 그 세 방면에 주동이 배치되는 것이다. 실제 햄스테드에는 이러한 유형들의 ‘쿼드앵글’들을 여러 곳에서 반복하여 실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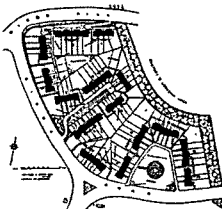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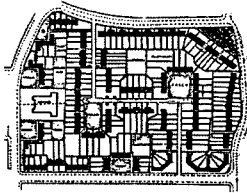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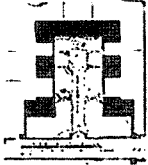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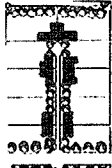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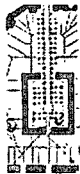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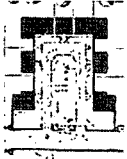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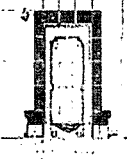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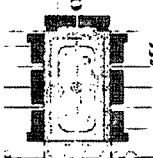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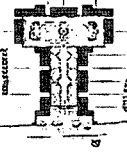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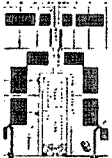
이와 같이 언윈에게 쿼드앵글은 촌락 내에 형성되어 있는 공동생활의 표현이었다. 새로운 가로나 교외에 쿼드앵글을 건설함으로써 주민들의 공동생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당시 대도시 교외에 지어졌던 획일적 일자형의 건축 조례 주택지를 비판하면서,

그가 제시한 공동광장(빌리지 그린)을 에워싸고 주택을 그룹핑하는 배치가 사회적 소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며, 私的空間과 公的空間의 사이에 있는 중간적 공용 공간으로, 적당한 공간의 ‘폐쇄감’을 가질 수 있는 공동 활동 장소를 조성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변화 있는 주택지 경관을 만드는 한 수단이며, 도로망 패턴으로 봤을 때에도 개방된 형태가 아니라 폐쇄적 형태라는 점이다. 이는 현재 자동차의 보급과 함께,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도 기여한다는 데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IV. 웰린 교외 주택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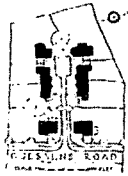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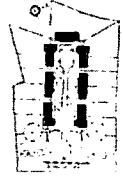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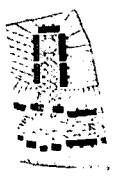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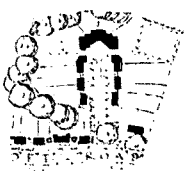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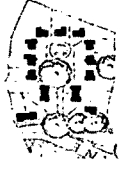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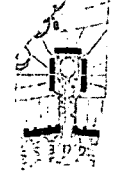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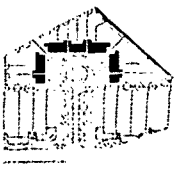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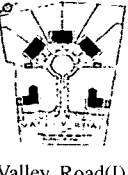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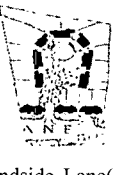

웰린은 20세기 교외 주택지 계획 중에서 햄스테드와 함께 예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웰린에서는 에워싼 배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언윈이 제안한 유형과 비교하여도<표 1, 2 참조>, 중앙 공간의 폭발적 전개가 분명히 보인다. 에워쌌던 이미 대저택이나 공공건물의 중정의 재현이라고 하기보다 일련의 건물을 집합화 하는 방법으로 폭 넓게 사용된다.

표 1. 언윈에 의한 주택지내 클러스터

I 레치위스 (언윈)	원형			
		Birds Hill	Pixmore Hill	
II 햄스테드 전원교외 (언윈)	컬데삭* (Cul de sac)			
		Romey Close Wyldes Close Hill Close	Constable Close Meadway Close	The Orchard Waterlow Court
	루프 (Loop)			
	Morland Close	Litchfield Square Lucas Square		
	Cul de sac + Loop			
	Heathcroft	Reynolds Close Asmunds Hill	Linnell close Turner close	

*도로구성체계로 분류함

표 2. 스와송에 의한 주택지내 클러스터

웰린 전원도시 (스와송)	장방형* 쿼드앵글				
	정방형 쿼드앵글				
	특이형태				

*오픈스페이스와 주동배치로 분류함

웰린 전원도시에서 스와송은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필요한 요소로 곡선 가로와 함께 주택의 그룹핑을 레치위스와 햄스테드처럼 추진했다. 주택을 소광장이나 컬데삭 주위에 그룹핑하여 배치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종합되고, 이웃사이에 사회관계를 육성하게 하였다. 당초, 컬데삭은 안길이가 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쓰였지만, 점차 정리된 변화가 풍부한 공간을 만드는 수법, 그위에 주민들 사이에 친밀한 사회관계를 키우는 목적을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도로와 주동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하여 가로 경관을 구성하도록 했다. 가로의 경관을 변화가 풍부하면서 다양하게 되도록 고안했다. 예를 들면, 지형을 충분히 읽으면서 도로를 대담히 구부리는 것, 도로 교차부의 주택 그룹을 시선 멈춤이 되도록 배치하는 것, 건축선을 도로선에서 띄어 설정하여, 대소 여러 가지 앞뜰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더욱 도로에 면한 주택은 15 m 이상 뎀다고 하는 원칙 (햄스테드 전원교외법의 제2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에 근거하여 주택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즉 여유 있는 가로경관을 만들면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도록 했다.

여기서는 스와송에 의해 계획된 ‘웰린 도시기본계획서(master plan, 1919년)’를 조사하여 컬데삭이 어떻게 전개되어 새로운 형태의 클러스터(쿼드앵글) 모델들로 제안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계획된 여러 클러스터 모델들을 분류한 뒤에 대조해 본 결과, 주택지 모델들은 오픈스페이스와 에워쌈의 형태에 따라 상관되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1. 에워쌈의 유형

첫째 형태는 언윈의 햄스테드에서 컬데삭으로 깊게 진

입하는 형태와 비슷하게 컬데삭으로 깊게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공동광장의 모습도 장방형의 형태이다.<표 2> Guessens Road(A)는 멋진 기존 수목들을 중심으로 독립 주택에 의해 구성된 쿼드앵글(quadrangle)이다. 입구부에 2호연립주택이 마주 보도록 하면서 공동광장을 닫는다. 기존 큰나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계획한 측면이 눈에 띈다. Handside Lane(B)은 도로에서 바로 연결된 긴 컬데삭 주위를 2호연립주택이 3면으로 에워싸고 있다. 뒤뜰에 대하여는 폐쇄(거부)되고, 전면(앞뜰)은 개방된 전면 개방형이다.

Barleycroft Road(C)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도로에서 깊게 들어간 컬데삭을 2호연립주택이 3면을 막아 주게 된다. 특히 컬데삭의 끝 부분에는 작은 산책로가 양쪽으로 연결되어 작은 공유지와 교묘히 연계하고 있다. 4-6 연속주택이 5개동으로 에워싼 유사한 모습이 Guessens Road(D)에도 있다.

둘째 그룹의 형태는 햄스테드(표 2 참조)의 컬데삭 도로에 루프가 결합한 형태와 유사하나, 루프는 대개 소멸하고 정방형의 공동광장만을 유지하는 형태이다. 아직 자동차가 일반화되지 않아 회차공간이 원형으로 마무리 된다.

Handside Lane(E)은 도로에 대해 열려진 직사각형의 둘러친 곳이다. 대를 해 마주 보는 2호연립 주택에 의해 입구부가 구성되고, 중앙축을 사이에 두고 각 단독 주택이 내부의 부분을 닫고 있다. 또 주택은 서로 정원을 사이에 두어 분리된다. 유사한 모습으로 Guessens Road(F)도 가로 쪽에 면한 연속주택들로 부터 컬데삭도로로 내부에 깊숙이 이끌어 새로운 쿼드앵글을 형성하고 있다. 그 세방면에 2-4호 연립주택이 배치되면서 街區내부를 적극 개발하고 있다. Parkway(그림 G)에서는 도로를 따

라 단독주택을 L자형으로 배치하여 도로에 대해 후퇴하면서 작은 광장을 만들어 접근로의 도입부를 만들어 내고 입구를 형성한다. 또한 도로에서 깊숙이 진입하면 2~3호 연립 주택이 세면을 에워싸므로 직사각형의 중정에 도달하고 환상 컬데삭이 있다. 이것은 각 주택들을 연결하는 벽이 에워싸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도로에서 훨씬 깊게 끌어들임으로서 안쪽 공간을 한층 더 私的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Handside Lane(H)은 루프형 가로가 내부에 있지만 사각형은 아니라 삼각형의 광장을 두고 있으며, Birds Hill Estate의 한 부분 같은 공용정을 갖고 있다.

셋째 그룹은 햄스테드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구성을 갖고 있다. 지형의 영향으로 에워싸의 형태가 다르거나 곡선의 컬데삭으로 연결하면서 쿼드앵글의 형태가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고, 중앙공간이 다양해진다.

Valley Road(I)는 도로에서 대칭의 단독주택에 이끌리어 내부에 원형의 컬데삭을 갖고 있으며, 그 주위를 부채꼴로 획지 분할하면서 2호연립주택 3동이 에워싼 특색 있는 모습이다. Valley Road(J)는 위로 균배의 경사면에 회화적 효과를 형성한 T형의 컬데삭이다. 도로에 면한 가구 뒷면에 좁은 컬데삭으로 내부로 연결하면서 또 다른 가구의 열을 형성하고 있다. 다른 예에는 2~4호 연립주택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비해 단독주택만으로 구성되고 있다. 웰린에는 약간 굴곡된 커브를 갖는 컬데삭으로 구성된 예들도 있다. Handside Lane(K)는 2호 연립주택이고, High Oaks(L)은 모두 단독주택으로 한편에 8채 정도를 두어서 가장 깊숙이 컬데삭으로 유도되고 있다.

2. 에워싸의 공간 특성

<표 2>에서 볼 수 있는 스와송에 의해 형성된 에워싸는 형태뿐만 아니라, 공간의 특성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에워싸여진 공간은 막다른 골목길(컬데삭)을 갖고 그것은 문자 그대로 우연히 통과하는 것은 아니라, 사적인 장소(주택) 이외로 안내하지도 않는다. 즉 도로에 제한을 두고, 통과하는 사람이 없는 장소로 변하게 하면서, 에워싸여진 앞마당 공간을 특수한 곳으로 만들게 한다. 그곳은 이웃 주민들 사이에 고유의 장소이고, 사는 주민들에게 반공적(semi public)인 성격을 강하게 한다.

건물로 둘러싸여진 앞마당 공간(공동광장)은 새로운 구별이 있어서 한편으로 도로와 보도, 다른 편은 주택에 직접 연결하는 공간이 있다. 그곳에 각 부지의 정면 폭에 해당하는 부분마다 주민 자신들이 관리 책임을 가진다. 실제로 각 부지를 분별하기 힘들어 오히려 주민들 사이에 조절에 맡기기도 한다. 그것이 이 공간을 공동소유로 바꾸기도 하고, 그 속에 작은 표적이 누가 어디에 사는지를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웃과 조절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 오히려 영국이나 막다른 골목길을 갖는 우리나라, 일본 등의 문화에 있어서 특유의 사회적 집단 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

다. 이 앞마당 공간은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협조의 장소이며, 주민사이에 사회화를 통해 가정적 기능의 일부를 이곳에서 공동으로 하기도 한다.

한편 각 주택으로 구획된 뒷마당 공간은 앞마당 공간으로부터 분리되고, 벽에 설치된 작은 문을 지나 뒤뜰로 접근하기도 하지만, 대개 주택을 통하여 접근하게 된다. 각 정원은 울타리에 따라 서로 분할되고, 이 부분이 앞과 뒤의 차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세탁 빨래를 말리는 일, 작은 헛간, 오래된 물품 보관소, 잔디밭을 손질하여 탁자나 의자를 열거한 코너 등으로 개인적 가정적 일들로 사용된다. 이와 같이 에워싸는 주택지내에서 앞과 뒤가 친밀한 대립을 만들어 낸다¹⁴⁾.

주택지내부를 보면 햄스테드보다 스와송이 계획한 웰린에서 에워싸를 형성하는 클러스터가 잘 나타나고 있다. 도로에 면한 기존 가구와 비교하면 에워싸는 새로운 위계를 유도하는 것으로, 앞마당 공간은 사적인 장소라기보다 이웃사이에 근린적 장소라는 점이다. 특히 도시가 도로에 대하여 앞마당 공간의 후퇴는 자립성을 구비한 하나의 독립한 단위를 형성하게 한다. Panerai(1977) 등은 웰린에서 클러스터 계획에 대해 “독립한 부지와 에워싸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밀도, 도로 등의 일반적인 계획 원칙에 따르면서도 공적영역인 가로에서 후퇴하여 근린영역을 새로이 만들어 사적 영역으로 연계하는 위계화를 중시하는 계획이다. 에워싸의 조합은 이 차원에 있어서 가치를 가지게 된다.”¹⁵⁾고 한다.

표 3. 우리나라의 교외주택지에 적용 가능한 예(모식도)

	컬데삭	루프	컬데삭+루프
도로 구성			
	· 에워싸의 기본적인 방법인 컬데삭 이용	· 내부에 루프를 두고 원활한 소통과 에워싸를 도모	· 루프와 컬데삭의 결합으로 보다 깊숙한 블록형성 기능
오픈 스페이 스구성			
	· 에워싸므로 정방형의 쓸모있는 근린 공용공간 형성	· 깊이있는 장방형의 공용공간, 남북향에 도움	· 고저차, 자연지형 등에 따라 다양한 에워싸 형태 가능

이러한 가치의 수월성은 여러 문헌에서 지적되고 있다.

14) 에워싸므로 인한 앞과 뒤 공간의 특성은 다음 문헌에 참조하여 재구성함. De Soissons, M., Welwyn Garden city: A Town Designed for Healthy Living, Publications for Business, Cambridge, 1988. pp.45-47.
 15) Ph. Panerai, J. Castex, Formes Urbaines, Bordas, Paris, 1977. (住環境の都市形態 鹿島出版會, 佐藤方俊譯, 1993), p.75.

교외주택지에서 잃어버린 공간을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Trancik¹⁶⁾은 전원도시 웰린에서 보여주는 뜰, 건물, 공동광장, 가로 등으로 잘 연계된 커뮤니티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Seaside등으로 유명한 DPZ(Duany and Plater Zyberk)등이 제시한 ‘전통적 근린주구개발’(TND=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¹⁷⁾에서도 교외주택지 계획에서 주목되는 계획기법으로 스와송의 에워싼 배치를 지지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교외형 주택지 개발에 있어 스와송의 에워싼 배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정리하여 본다. 향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여러 안으로 디자인하여 폭넓게 교외 주택지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V. 결 론

주택지계획에서 언윈이나 스와송의 공원은 집단으로 계획한 공간 디자인에 있다. 그들은 주택지 설계에 있어서 10~20채 주택을 공동광장으로 에워싸 집단으로 계획하고, 공동광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공간을 상호 작용하게 하여 공동체 형성이 잘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러한 계획방법은 영국 주택지 설계방법으로 정착되었고, 언윈의 저서 출판과 함께 전 세계에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되었다. 햄스테드가 언윈에 의해 계획되었다면, 웰린은 스와송에 의해 언윈의 계획이념들이 변형되어 반영되었다. 웰린에서는 컬데삭이 보다 다양하게, 또 에워싸여진 중심공간이 여러 형태로 전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웰린에서 주택지 유형의 모습들을 조사 분석하면서 계획상의 특성을 추출하였으며, 특히 스와송에 의해 제안된 ‘에워싼’ 형태를 언윈이 제안한 유형과 대비하면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웰린에서 나타난 ‘에워싼’의 유형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컬데삭으로 깊게 진입하는 형태로 공동광장의 모습도 장방형이다. 도로에서 바로 연결된 긴 컬데삭 주위를 2호 연립주택 등이 3면으로 에워싸고 있다. 뒷뜰에 대하여는 폐쇄되고 전면(앞뜰)은 개방된 전면 형태이다.

둘째, 햄스테드의 컬데삭 도로의 종점에 루프가 결합한 형태와 유사하나 루프는 대개 소멸하고 정방형의 공동광장만을 유지하는 형태이다. 가로 쪽에 면한 주택들보다 컬데삭으로 클러스터내부에까지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다. 그린중앙으로 컬데삭 도로가 통하고, 그 세방면에 2~4호 연립주택이 배치되면서 街區내 안쪽부를 적극 개발하고 있다.

셋째, 지형의 영향으로 에워싼의 형태가 다르거나 폭

선의 컬데삭으로 연결하면서 사각형의 공동광장 형태가 아닌 모습이다. 내부에 원형의 컬데삭을 갖고, 그 주위를 부채꼴로 획지 분할하면서 에워싼 형태도 있고, 경사면에 T형의 컬데삭으로 진입되는 형태도 있다. 커브를 갖는 컬데삭 주위를 에워싸는 모습 등으로 중앙공간이 다양해진다.

이와 같이 주택을 소광장이나 컬데삭 주위에 에워싸 배치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종합되고, 사회관계를 육성하게 한다. 웰린에서 컬데삭은 안길이가 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쓰였지만, 차차 정리된 변화가 풍부한 공간을 만드는 수법, 그 위에 주민들 사이에 친밀한 사회관계를 키우는 목적을 포함 하게 되었다.

그리고 소광장(village green)이나 컬데삭(골목길)의 주위로 주택을 집합화 하는 주택지 클러스터의 형태는 한번 정의되면, 여러 가지로 변화 있게 계획할 수 있다. 웰린은 햄스테드와 함께 이러한 구성으로 새로운 주택지 계획에 관한 유형적 시도였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의 교외 주택지 계획에서도 스와송의 개념을 지지하여 폭넓게 응용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Cherry, G. E.(1974), The Evolution of British Town Planning, Leonard Hill Press.
2. Creese, W. L.(1966), The Search for Environment; the Garden City Before and After, New Haven.
3. Creese, W. L. ed.(1967), The Legacy of Raymond Unwin; A Human Pattern for Planning, The MIT Press.
4. Cynthia L. Girling(1998), Yard Street Park, The Design of Suburban Open Space, John Wiley S Sons, Inc.
5. De Soissons, M.(1988), Welwyn Garden city: A Town Designed for Healthy Living, Publications for Business, Cambridge.
6. Hall P. and Ward C.(1998), Sociable Cities: The Legacy of Ebenezer Howard, Wiley, Chichester.
7. Osborn F. and Whittick A.(1963), The New Towns - The Answer to Megalopolis, Spon, London.
8. Ph. Panerai, J. Castex, Formes Urbaines, Bordas, Paris, 1977.(住環境の都市形態 鹿島出版會, 佐藤方俊譯, 1993)
9. Roger Trancik(1986), Finding Lost Space,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10. Unwin, R.(1994), Town Planning in Practic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1. Ward, S. V. (ed.)(1992), The Garden City: Past, Present and Future, Spon: London.
12. 西山康雄(1992), Unwinの住宅地計劃を讀む, 彰國社.

(接受: 2005. 5. 30)

16) Roger Trancik(1986), Finding Lost Space,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p.52.

17) Cynthia L. Girling(1998), Yard Street Park, The Design of Suburban Open Space, John Wiley S Sons, Inc, pp.174-184.